

새해 교육활동 보호 한층 더 강화

도교육청, 전북교육 바로 세우기 만전... 지난해 17개 대책 중 15개 추진 올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지역교육지원청 이관 등 신규사업 추진키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2024년엔 한층 더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로 전북교육 바로 세우기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전북교육인권센터에서 발표한 전북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17개 종합대책 중 15개 사업은 이미 완료했고, 나머지 2개 사업은 추진 중이다.

주요 성과로는 학교단위 자동 녹음

시스템 도입,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 시스템 도입, 민원상담실 구비(자동 녹화기능 구비), 안심번호 서비스 전면 확대, 민원처리 학교장 책임제 시행 등이 있다. 또한 △교육활동 보호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 △교육활동 보호 지원 조직 구축 △교육활동 보호센터 운영 △교원에 대한 존중과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 등을 교육활동 보호 정책 방향으로 삼았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오는 3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특히 올해는 교원지위법에 의거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 보호센터로 확대 설치하고, 전문 상담사를 통한 교권침해 상담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진료기관을 33개에서 73개로 대폭 확대했다.

이와 함께 교원에 대한 존중과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에도 앞장선다. '함께 만드는 학교', '함께 만드는 교실', '교사·학부모의 만남 프로젝트' 등을 운영해 교육주체들 간의 존중의식을 공유하고, 교육활동보호 인식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교육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고, 학생인권센터를 교육인권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등 교원과 학생인권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자 했다"면서 "올해도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통한 교원이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김진수 교수(사진 가운데)가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의 활성화와 안정적 운영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정부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 활성화·안정적 운영 공로 인정

전북대 김진수 교수, 교육부장관 표창 수여받아
차세대 모빌리티용 반도체 전문 교육과정 운영

전북대학교 김진수 교수(공대 신소재공학부)가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특성화대학지원사업의 활성화와 안정적 운영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전했다.

4일 전북대에 따르면 김 교수는 반도체 교육 역량을 갖춘 대학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교육부가 공모한 반도체특성화대학지원사업 유치에 대학 내 기반을 구축하고, 전남대와 연합으로 동반성장형에 선정되는 데 앞장섰다.

사업 선정 이후 전북대 반도체 특성화대학지원사업단장을 맡아 전북대와 전남대는 '반도체 융합 전공'을 신설해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한 '차세대 모빌리티용 반도체'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올해

부터는 시스템·메모리 반도체 및 센서 반도체 트랙을 운영하고, 반도체 관련 취·창업과 현장실습, 전문교육 과정 운영을 통해 실무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반도체 분야로 진출을 꿈꾸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기업과 학생들 간의 간담회와 토크콘서트를 진행하는 등 반도체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김진수 단장은 "그동안 반도체 특성화지원사업을 위해 함께 힘써준 여러 교수님들과 대학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협력해 준 덕분에 이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면서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재들을 반도체 분야 전문인재로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미안마 유학생 초청 '밥 한끼의 사랑' 나눔 진행

전주대학교 국제교류원은 4일 미안마 유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밥 한끼의 사랑'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3년 전부터 군부 쿠데타로 방학 중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미안마 유학생을 위해 한우(韓牛)의 참맛을 알리고, 지역사회와의 우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명품 한우를 제공한 이철민(모악산 소야 대표) 씨는 "내전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미안마 유학생들의 소식을 전해 듣고 유학생들에게 밥 한끼를 나누며 위로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미안마 유학생 박성(경영학과)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받아 기쁘고, 우리나라도 사람들의 온정을 느낄 수 있는 시기가 하루빨리 오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주대학교 국제교류원이 4일 미안마 유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밥 한끼의 사랑' 나눔 행사를 진행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했다.

이어 "한우는 한국 사람도 먹기 힘든데 이렇게 맛있는 한우를 마음껏 먹게 돼 정말 행복하다"고 덧붙였다.

전주대 국제교류원장 제혜금 교수는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 준 이철민 대표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며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수학을 통해 점차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나가길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는 매년 지역사회와 연계해 유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후원, 방과 후 문화 교실, 생필품 나눔 등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3월부터 어울림학교를 확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어울림학교 본연의 운영 취지를 살리고, 더불어 공동통학구형 확대·개편을 통해 학생 유입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르면 먼저, 시·군 내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는 원통학구 학생 수가 10명 이상~60명 미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동일 시군 내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의 전·입학을 허용해 농어촌 작은학교 학생 유입에 긍정적 효과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70개 초등학교에서 운영중이다.

이어 시군 간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는 올해 처음 도입되는 정책으로,

3월부터 어울림학교 확대

도교육청, 올해 147개교서 운영

교육장 간 동의를 통해 시·군 경계를 넘어 공동학구를 설정해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주소이전 없이 전·입학을 허용한다.

큰 학교 1교에서 작은학교 여러 곳으로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해 지역적 한계를 넘어 학생 유입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과밀학교 해소 및 농어촌지역의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원통학구 학생 수 10명 이상~60명 미만 초등학교만 가능하며, 작

은 학교에서 큰 학교로의 전·입학은 불가하다.

끝으로 교육과정협력형 어울림학교는 학생 수 10명 이상~100명 미만 초·중·고등학교가 대상이며, 인근 작은 학교 간 협력체계를 갖추고 마을 교육자원 등을 활용해 지역 및 학교 여건과 특색에 맞는 창의적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는 중심학교와 협력학교(중심학교:협력학교 1:1)로 구성해 인근 작은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며, 학생 수와 운영 계획 등에 따라 운영비가 차등 지원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올해부터는 시·군간 경계를 허물어 광역형 공동통학구 어울림학교를 운영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또 작은학교의 교육환경을 보다 향상시켜 농어촌지역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어울림학교는 시·군 내 공동통학구형, 시·군 간 공동통학구형, 교육과정협력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모두 147개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군 내 공동통학구형은 97개교, 시·군 간 공동통학구형은 23개교, 교육과정협력형은 20개교, 학교-마을 협력형은 7개교 등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지역 대학생 대상 기초교양 교육 실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겨울방학 중에 도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준별 기초·교양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3월부터 전북지역 10개 대학이 참여하는 '전북새만금테크(JST) 공유대학(원)'을 신설해 미래수송기기(주관대학 전북대)와 에너지신산업(주관대학 군산대), 농생명·바이오(주관대학 원광대) 분야 혁신인재 양성에 나서는 전북대 대학교육혁신본부가 전북지역 대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다 탄탄하게 해주기 위해 마련

됐다.

이에 전북대 등 도내 10개 대학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수학과 물리, 화학, 파이선 등에서 수준별로 12개 분야로 나눠 1월 23일부터 3월 8일까지 교육이 실시된다.

전북대 대학교육혁신본부는 이 교육에 참여할 전북지역 대학생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참여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신청은 온라인 구글 폼 (<https://ms.site.naver.com/1hL5s>)을 통해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